일 주 문



강원종교평화협의회장 선출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3월 29일 강릉 반석교회서 열린 제22차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종우 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3일 제32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 그리기 대회를 경내 범영루 광장에서 개최한다.



삼각산 산신대제 봉행

도서 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4회 신령스러운 삼각산 산신대제'를 봉행한다.



제10회 낙동강 방생 법회

무심 대구 달성 무심선원장 스님은 4월 9일 '제10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청주고인쇄박물관 유물기증

혜철 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3월 29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음보살도를 기증했다.



제4차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4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제4차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입사자 연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3월 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년 신규입사자 연수'를 개최했다.

120여 참가자들은 최종환 재단 사무국장의 '종단과 재단에 대한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재단 시설협의회 회장 화평 스님의 '불교사회복지사에게 바란다' 등 강의를 청취했다. 노덕현 기자

화촉 노수경 조계종 교육원 주임은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모카웨딩컨벤션 벨리스홀에서 신랑 이성원 씨와 화촉을 밝힌다.

"동문 화합 · 회관 건립 동창회 현안 해결할 것"

Interview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추대된 전영화 25대 회장



"지난 2년 어려운 시기에 동국대 총동창회 24대 회장을 맡아 전향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25대 회장에 재추대한 것은 동문 사회를 화합시키고, 부족한 것은 확실히 바로 잡으라는 선후배들의 권고로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문 화합과 회관 건립이라는 현안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전영화 회장(70. 옥토그린 대표)은 재추대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전 회장이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동문 화합'이다. 그간 동국대 총동창회는 양분돼 전임 회장들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임 회장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전 회장의 판단이다.

"사법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동창회라는 특성을 배제해서도 안됩니다. 우선 4명 전임 회장들의 명예회복과 복원 등을 현실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연택 회장 측이 불복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미래를 향해 가는 총동창회의 장애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화합의 총동창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간 총동창회의 숙원사업은 '동문회관 건립'이었다. 백년 사학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총동창회는 변변한 동문회관이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 전 회장은 역대 회장들의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자신의 임기 중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현재 총장 보광 스님이 학교에서 신축하는 첫 건물을 동문 회관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관 건립기금 22억 원이 학교에 기탁돼 있는 상황인 만큼 회관 건립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면 회관 건립안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건물을 착수하게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기금 모금을 활성해 회관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회장은 "동국대 총동창회를 백년사학에 걸맞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개교 111주년이 된 모교를 도와 일심동행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30만 동문들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군장병 마음에 희생 · 봉사 정신을 심자"

군법당 108순례 진행하는 구암 스님

군장병들을 보살피기 위한 작은 순례가 진행되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가평 청평암 주지 구암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 계조암, 낙산사 등에서 수행을 해왔고, 2007년 청평암을 창건했다.

스님은 포교 불모지였던 가평에서 포교방안을 모색했고, 군법당 순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07년 처음 시작한 108군법당 순례법회가 10년을 맞았다. 스님은 3월 26일 포천 번개부대 승법사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스님은 "자신이 머무는 법당의 불사보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포교가 선행돼야 불교 중흥을 이끌 수 있다"며 "특히 군포교가 중요하다. 청년불자들에게 사회에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자비의 사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으로써 포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구암 스님은 겸양을 표했다. 스님은 "보통 스님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욱 더 열심히 다뤄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군법당 순례 외에도 열악한 사세 속에 '꽃나무울타리장학회'를 만



들어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매년 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삶은 손 안에 쥐어진 한줌의 마른 검불 같은 것입니다. 참된 혜명은 생을 태우고 사를 태우고 다시 삼천대천세계를 태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종자연 차기 대표 류상태 前대광고 교목실장

3월 25일 2017 정기총회서 추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차기 대표로 류상태 목사(사진)가 추대됐다.

종자연은 3월 25일 2017 정기총회서 차기 대표로 류상태 목사를 추대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중앙대 철학과,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사 안수를 받았다. 숭의여중, 대광중고등학교서 교목으로 재직했다. 저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다.

종자연 측은 "류 목사는 지난 2004년 당시 예배선택권을 주장했던 강의석 학생



이 재학 중이던 대광고교의 교목실장이어다. 류 목사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강의석 학생을 보호하려다 끝내 교목을 사임하고 학교를 떠났으며, 교단에 목사직도 반납했다"며 "학교를 떠나서도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포럼, 〈성철 평전〉 저자강연



불교포럼은 3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소설 〈성철 평전〉의 저자인 김택근 작가를 초청해 제23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택근 작가는 "성철 스님이 생전에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과 삼천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깨달음과 수행을 위한 돈오돈수론을 가르쳤다"며 "이같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조계사, 백송대학 입학식



조계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인 백송대학을 개설하고 3월 24일 대웅전에서 백송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 부주지 원명 스님, 교육국장 승묵 스님, 김의정 신도회장, 입학생 16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송대학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삶의 지혜를 배운다. 매주 목 · 금 오후 2시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 강좌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수요시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3월 29일 제127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 일동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주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자 국민들이 부정하는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고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